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본부에서 열린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산화 기록물 전달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가 직접 참석해 이찬희 한국 스카우트연맹 총재에게 새만금 잼버리의 사진과 영상 기록물을 담은 외장하드와 사진액자, 사진 작품집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록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교훈”

도,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새만금 잼버리 기록물 전달

“기록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교훈이고 유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산화 기록물’을 전달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본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가 직접 참석해 이찬희 한국 스카우트연맹 총재에게 새만금 잼버리의 사진과 영상 기록물을 담은 외장하드와 사진액자, 사진 작품집을 전달했다. 잼버리 유산화 기록물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 새만금 세계 잼버리의 진솔한 모습을 전달하고, 잼버리에서 얻은 배움과 교훈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제작에는 새만금 잼버리의 현장 스카우트와 함께 생활하고 누웠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도지회가 참여했다. 기록물에는 개·폐역식과 영내활동, 잼버리 공식 과정활동 프로그램이었던 14개 시·군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비롯해 잼버리 전후로 열린 전북관광, 스카우트의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프로

그램 등 새만금 세계잼버리 스카우트대원들의 모든 활동이 총망라돼 있다. 외장하드에는 사진 1만 6천 장과 4시간 길이에 달하는 42편의 영상이 담겼으며, 활동별로 선별한 사진으로 구성된 152쪽 분량의 사진작품집도 제작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기록물에는 새만금 잼버리의 모든 행사를 기록한 사진과 영상들이 모두 담겨 있다”면서 “폭염과 태풍이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스카우트의 도전정신과 현장의 활기, 그리고 역경을 함께 이겨낸 도민들의 운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은 기억을 보존하고 그 기억을 통해 배우

게 하는 소중한 수단”이라며 “회원국들과 세계스카우트연맹, 그리고 우리도가 추억과 교훈을 공유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더 값진 유산을 남겨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찬희 총재는 “잼버리 참가대원의 소중한 기억을 기록물로 제작해 주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도지회 그리고 전북도에 감사하며 참가대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사진작품집은 전북특별자치도청 E-BOOK 홈페이지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 영상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생생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스마트팜 청년창업, 역시 전북이 최고’

7기 교육생 모집 경쟁률 6.3:1, 7년 연속 '전국 1위'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원장 이태수)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스마트팜을 이끌어나갈 청년창업 농업인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7기 교육생 52명 모집’에 7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면서 역대 최대·최고인 총 326명이 지원하여, 6.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4개 혁신밸리를 비교했을 때 최대·최고의 지원 및 경쟁률이다.

전북 청년창업보육 교육은 타 지역 대비 배후도시가 없고, 접근성도 불리한 상황이나,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운영과 스마트팜 전문가 5명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점 등이 인정되어, 전북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창업보육센터가 명실상부한 전국 청년들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의 요람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은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개월 과정의 장기 교육 프로그램이며, 교육과정은 스마트팜 농업기초, 정보통신기술, 데이터 분석 등의 입문(기초이론)교육 2개월(180

시간)과 전문가 지도 하에 종자과종부터 수확까지 전과정을 진행하는 교육형실습 6개월(480시간)에 이어, 자기 책임하에 작품의 전 생육기간 동안 농업경험을 경험해볼 수 있는 경영형 실습 1년(960시간)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입문교육 참여자는 교육담당 숙·식비를 지원하고 교육형실습 과정부터는 실습비 월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며, 경영형실습 기간에는 이에 더해 영농재료비 월 3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생 부담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 우선 입주자격, 스마트팜 종합자금(30억원, 융자) 신청자격,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자격, 청년후계농 선발 시 가점 등이 부여된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 청년창업보육센터에 믿고 지원해 준 전국 청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청년들을 스마트농업 전문가로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본격적인 장마 대비 선제적 현장 점검

도-시군-수공 합동 우기철 섬진강댐 운영방안 등

전북자치도가 이번 주 제주 인근지역에 장맛비가 시작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호우, 태풍, 폭염) 대응 태세 현장점검에 나섰다.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난 21일 △임실군 섬진강댐 △임실군 이북경로당 무더위쉼터 △임실 풍수해생물권 정비사업 현장 등 잇따라 방문해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 등 관계자와 함께 우기철 대비 안전대책 및 폭염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다음 주 다가오는 장마철 시작에 대비해 섬진강댐을 방문해 홍수기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댐 방류 시 주민 홍보 계획, 하천 내 세월교 등 시설물 통제계획 등 인명피해 예방 대비 상황을 함께 살폈다.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에서는 집중호우 및 하천 홍수 방어능력을 고려해 홍수기 운영 수위를 설정 운영할 계획이며, 수위 상승 시 수문 방류 개시 24시간 전, 3시간 전에 방류계획을 통보하고, 시·군과 함께 재난문자(CBS)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수문 방류 전 경보방송 시행 및 하류 주민 안전을 위한 시·군과의 합동 순찰로 하천 하류 내 행락객 사전 대피, 세월교 및 하천 산책로 통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최근 전주, 완주 등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폭염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해 강진면에 위치한 이북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냉방기 가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등 소통했다.

폭염 대비해 전북 지역에는 5,586개소의 무더위쉼터 운영, 그늘막 등 1,532개소의 폭염 저감시설이 설치됐으며, 생활지원사와 고령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일대일 매칭해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과 중국 관광객 유치 팔걸어

중국서 20일부터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 국제 관광전' 태권도 공연·전통공예 체험 등 소비자 관광 행사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중국 현지에서 14개 시·군과 공동으로 올해 여름방학과 하반기 중국 관광시장을 겨냥한 관광마케팅을 펼쳤다. 전북자치도는 방한 관광객수 1위인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청다오 웨스틴호텔에서 산동성 관광업계, 미디어 관계자 100여명을 초청해 '전북특별자치도 국제 관광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4개 시·군의 관광자원과 매력을 알리는 관광설명회와 각 시·군 담당자와 현지 여행업계 관계

자가 만나 지역의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에 대해 상담하는 관광상담회로 이뤄졌다. 관광설명회에서는 K-문화·관광수도인 전북 14개 시·군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웰니스 등 주요 테마 관광자원을 알리고, 지역축제 및 전북자치도의 관광 인프라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북자치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알리고 관광전을 찾아온 중국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전주대 태권도 시범단 ‘싸울아비’의 태권

도 공연을 마련했다. 이는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보이며 청소년 교육여행, 특수목적관광 교류단 유치에 힘을 더했다. 21일에는 청다오 시내 소광물에서 잠재적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북 관광 홍보와 태권도 공연, 청사조롱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현지 관광객의 큰 관심을 끌었다. 전북자치도는 한국관광공사 청다오 사무소와 협력하여 미디어 홍보도 강화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20일에 가졌던 관광설명회는 청다오 TV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라이브방송 공식 계정인 란칭(藍晴)을 통해 중국 전역에 생중계되었고, 추후

청다오 TV 방송국 교육채널에 전북자치도의 특화자원인 태권도와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해 소개될 예정이다. 이남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중국 관광시장은 다양한 체험활동 및 교류, 지역의 특별함을 느끼고자 하는 특수목적관광 또는 개별 여행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14개 시·군 및 중국 여행사와 함께 중국 관광객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전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마케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